

# 반려동물 입양, 코로나 시기에 급증!

과거에는 사람의 즐거움, 교감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일컫는 말인 ‘애완’이라는 말이 익숙했으나, 현재는 많은 이들이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사람들의 소유물보다는 반려자(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대우받는 추세이다.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겠다는 사회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으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2023.8.)을 발표하는 등 국가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한 4대 주력사업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인데 여기서 ‘펫’만 제외하면 사람에게 적용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최근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국민 4명 중 1명(24%)이 반려인이며, 반려가구 대부분(82%)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로 말하자면 교인 4명 중 1명은 반려인이고, 그들 중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입양은 특히 코로나시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목회적/신학적 이슈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넘버즈 주제를 ‘반려동물’로 정했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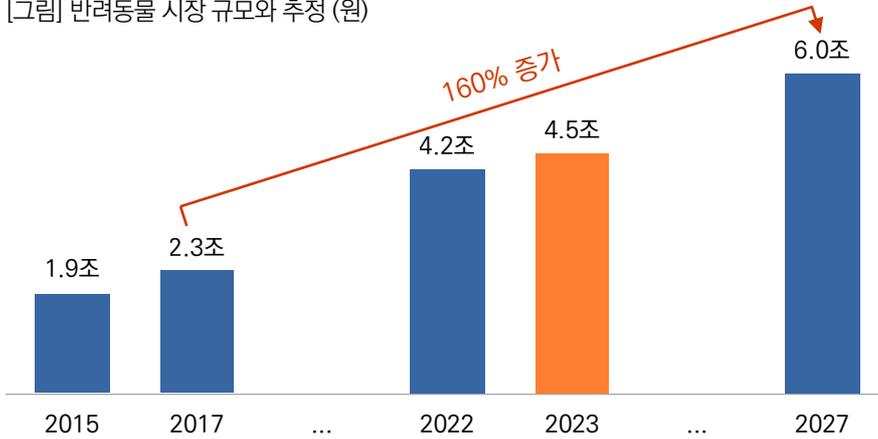
# 01

## [반려동물 시장과 현황]

### 반려동물 시장, 2017년 2.3조 → 10년간 160% 성장 예상!

- ▶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즉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2015년 1.9조 원에서 2023년 4.5조 원, 2027년에는 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반려동물 시장 규모와 추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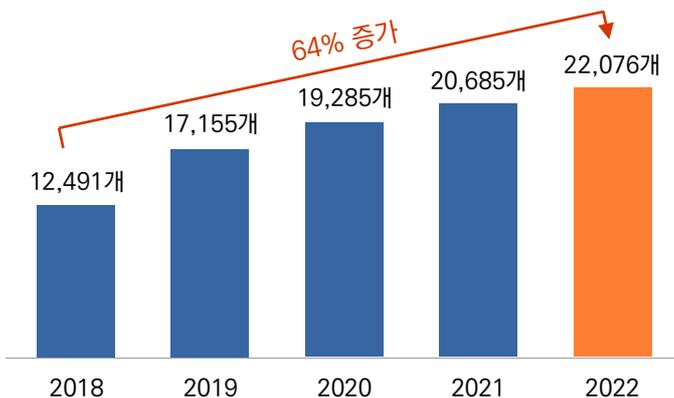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확대, 문화·제도 뒷받침되어야' 보도자료(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8.03.06.

### ◎ 반려동물 관련 업체 수, 4년 사이 64% 증가!

- ▶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업체 수는 2018년 약 1.2만 개에서 2020년 1.9만 개, 이 이후로도 지속해서 늘어 2022년 약 2.2만 개로 4년 사이 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반려동물 관련 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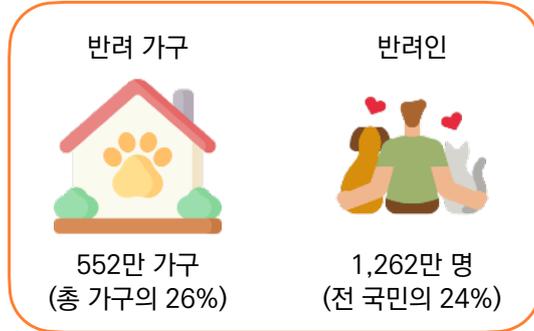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8.13.

\*\*미용, 판매, 위탁관리, 생산, 운송, 수입, 전시, 장묘 관련업

## ◎ 우리 국민 4명 중 1명(24%)은 반려인!

- ▶ 우리나라에서 개, 고양이, 물고기, 거북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와 '반려인' 현황을 살펴본다. 2022년 기준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였다.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2022년 총인구 5,169만 명 기준 24%에 해당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인인 셈이다.

[그림] 반려 가구 현황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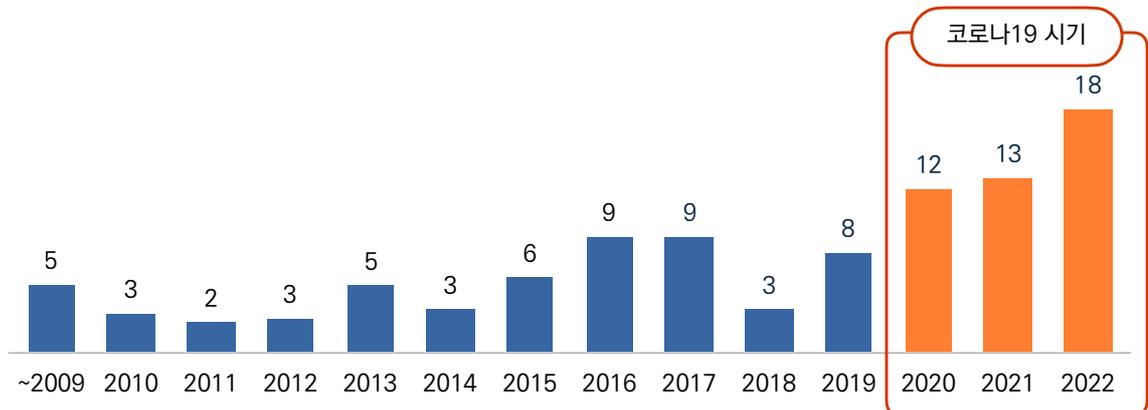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 20~69세 남녀 2,000명 설문 조사 결과 활용하여 추정, 모바일조사, 2023.02.15.~02.27.)

# 02

## [반려동물 입양] 반려동물 입양, 코로나 시기에 급증!

- ▶ 가장 최근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기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는 각 연도마다 10%를 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에는 10%대 이상으로 반려동물 입양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장 최근 반려동물 입양 시기 (%)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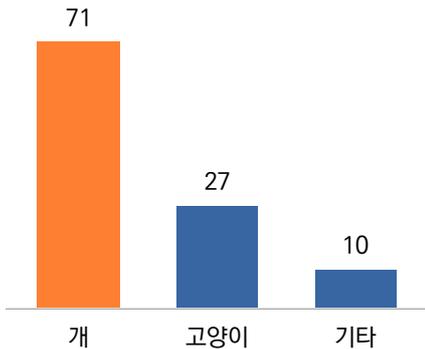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

### 반려 가구 10가구 중 7가구, 반려견 키워

- ▶ 양육 반려동물로는 2022년 기준 '개(7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고양이(27%)', '기타(10%)' 순이었다. 반려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반려견을 기른다는 얘기이다.
- ▶ 반려 가구의 반려동물 평균 개체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반려견 수와 반려묘 수를 추산하면 개는 473만 마리, 고양이는 239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양육 반려동물 (반려 가구, 2022, 중복응답, %)

[그림] 반려동물 개체 수 (2022)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 ◎ 반려동물 1마리 1년 키우는 데 평균 219만 원!

- ▶ 반려동물 입양부터 장례까지의 생애 비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반려동물 입양 시 드는 분양비는 평균 28만 원이었고, 건강관리/치료비를 제외한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연간 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치료비는 39만 원, 장례비는 평균 38만 원이었다.
- ▶ 1년 양육비는 반려동물 1마리당 월 양육비와 치료비만으로 219만 원 정도 된다.

[그림] 반려동물 관련 평균 지출 비용 (반려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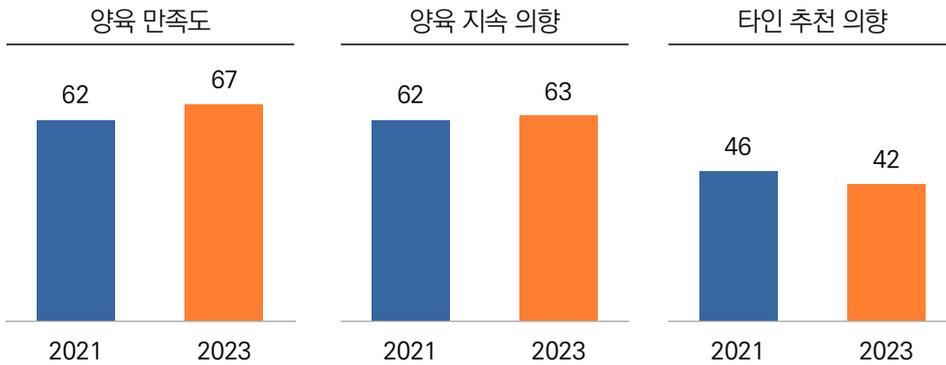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가구 기준

## ◎ 반려인, 반려동물 양육 만족하지만 타인 추천 의향은 떨어져

- ▶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양육 지속 의향', '타인 추천 의향'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양육 만족도'에서는 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1년보다 다소 상승했으며, 63%는 '계속 기르겠다'고 양육 지속 의향을 보였다.
- ▶ 반면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의 경우 42%만 '추천하겠다'고 응답해 양육 만족도 대비 큰 온도 차를 보였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평가 (반려인, 7점 척도 중 6~7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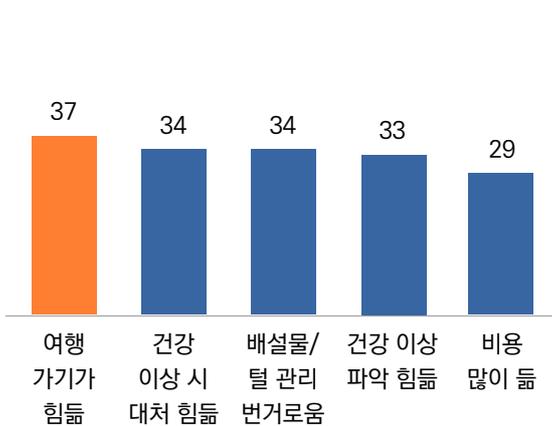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매우 만족 7점, 보통 4점, 매우 불만족 1점 등 1~7점 사이로 응답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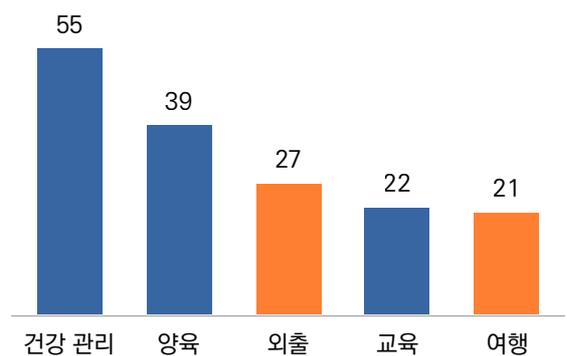
## ◎ 반려동물 양육 가장 어려운 점, '여행'!

- ▶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심사는 무엇일까? 애로사항으로는 '여행'과 '건강'이, 관심사로는 '건강 관리'가 높게 나타났다.
- ▶ 특히 여행이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여행시 반려 동물을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집에 놓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려 가구의 고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반려동물 양육 애로사항 (반려인, 1+2+3순위, 상위 5위, %)



[그림] 반려동물 양육 관심사 (반려인, 1+2+3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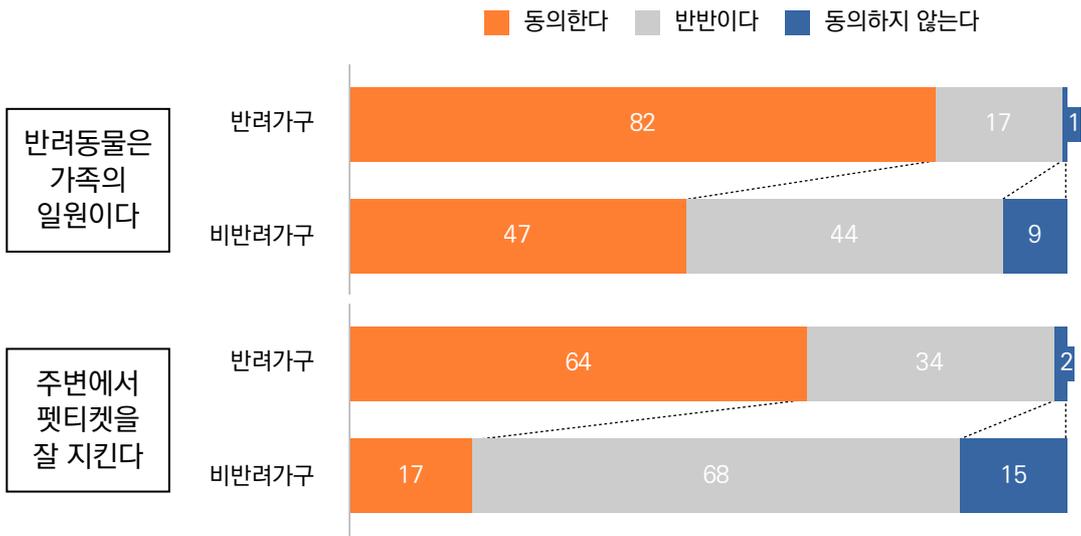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 04

## [반려동물 관련 인식] 반려인 10명 중 8명,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 ▶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려 가구와 비반려 가구 인식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란 진술문에 대해 '반려 가구'는 대부분(82%)이 '그렇다'고 동의한 데 반해, '비반려 가구'는 절반에 못 미치는 47%만 동의했다. 또,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킨다'에는 '반려 가구' 3가구 중 2가구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반려 가구의 인식은 달랐는데, 펫티켓 준수에 대한 동의율이 17%에 불과했다.

[그림]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 차이 : 반려 가구 vs 비반려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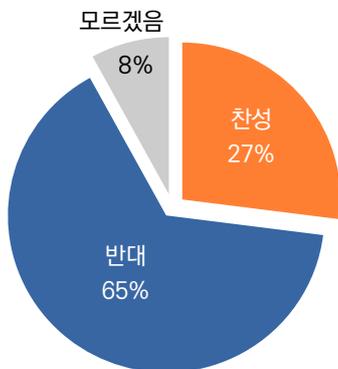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3.06. (반려동물 양육 중인 전국 20~69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3.04.28.~05.03.)

### ◎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 교회 내 반려동물 공간 마련 '찬성'!

- ▶ 작년 11월초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목회자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넘버즈풀에서 '교회에서 성도와 반려동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반대'가 65%로 목회자 3명 중 2명은 교회 내 반려동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찬성' 의견도 27%로 적지 않았다.

[그림] 교회 내 반려동물 동반 예배 공간 마련 인식 (목회자)



\*자료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제65차 넘버즈풀 결과, 2023.11.06.~11.19. (목회자 760명)

\*\*이 조사는 넘버즈 구독자(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상에서 단순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회 규모 등을 고려한 정확한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 시사점

‘애완동물(Pet)’은 인간이 주로 곁에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애완동물 보유 세대가 급증하고 동물의 생명권이 중요해지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반려동물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록되고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언론 역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대표 단어가 되었는데 ‘반려동물’을 공식 단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려(伴侶)’는 한자어로 ‘짝 반’과 ‘짝 려’를 써서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라는 의미로 결혼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가축’으로 길러 온 동물이 애정과 즐거움으로 사육하는 ‘애완동물’을 거쳐 인간의 동반자가 된 것은 단순한 단어의 변천사 정도가 아니라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된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총 가구의 26%, 전 국민의 24%)은 반려인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9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2만 개로 4년 전에 비해 64% 증가했다. 저출산 기조와 비교하여 ‘개 유모차’가 아기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웃지 못할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이다.<sup>1)</sup>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반려동물의 변화된 관계에 기인한다.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에 반려동물 입양이 급증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구의 이유로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이 많았다. 반려인의 대부분(82%)은 반려동물을 ‘소유물’ 정도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함께 여행 가기가 힘들’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다.

이러한 반려 가구의 성장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교회와 목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고신총회 내에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반려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문화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예견될 것에 대비해 교회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 입장’이란, 반려동물이 예배에 참여 가능한지, 반려동물에게 축복기도가 가능한지, 장례식이 가능한지 등을 신학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이다.

실제로 ‘교회’, ‘예배’, ‘반려동물’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반려동물 양육과 신앙적 문제가 상충하는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정의하고 실천한 의견과 행동에 관해 공감과 비난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한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신학적 입장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성도의 고민을 이해하고 목회적 입장에서 상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 가구 성도는 반려동물에 쏟는 과도한 애착을 경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가구의 인식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고신총회의 ‘반려동물에 관한 신학적 입장’ 청원건은 2년 동안 기각되었다가 2023년에야 상정되었다. 반려 가구가 증가하고 관련한 성도의 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된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이슈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과정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이다.

1) 조선일보, ‘개 유모차’가 아기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3/12/25/G26QCSJB3JFRPJRB3SHUOURPQU/](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3/12/25/G26QCSJB3JFRPJRB3SHUOURPQU/))